

로데오 게임

(RODEO GAME)

지난 5월 16일 오후 전국대학교 가설 민속촌 앞뜰에서 Rodeo게임(일명 동물 붙들기)이라는 이색경기가 열렸다.

동대학 축제중 동물을 이용 건전한 오락을 즐기고 가축들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킴으로 축산 한국으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대한 축산대학에서 시도한 이날 게임은 오병규 대대장(축산과 4년)의 개최선언에 이어 농악대의 흥겨운 퍼레이드와 모의 투우(鬪牛)로 많은 관중의 폭소를 자아내었다.

Rodeo 게임은 본래 목동들이 낙인을 찍기 위해 목우(牧牛)모으기 혹은 목동들이 올라미를 던져 들소를 잡는 '기술공개자랑'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날은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닭·토끼·염소등을 방사(放飼)시킨 후 그들을 쫓아 빨리잡기·예쁘게잡기·꼬리에 멧진리본 달아주기등 건전한 오락을 즐긴

것이다.

첫 순서로 「닭붙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는 남녀개인이 참가하여 제한시간 2분내에 빨리잡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 그중 가장 멋있고 안정되게 잡은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닭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장 밖으로 넘어 갔을 때는 실격이 된다. 「토끼잡기」는 남녀커플이 참가하여 제한시간 2분내에 잡되 빨리잡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 가장 멋있고 안정되게 잡은 커플에게는 따로 시상하며 「염소꼬리에 리본달기」는 남녀커플이 함께 참가 제한시간내에 염소꼬리에 예쁘게 리본을 단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였다.

열심히 뛰어가서 토기를 잡은 여학생이 잡은 토끼의 꿈틀거림에 놀라 다시 놓는 웃지 못할 촌극과 이어서 벌어진 닭싸움(鬪鷄) 등 다채로운 푸로가 진행되었다.

